

지수형 ELS

투자 기관	은행 혹은 증권사 (하지만 떼가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증권사 거래를 추천!)
최소 투자 단위	상품에 따라 10만원 이상 혹은 100만원 이상
기대수익률	제1금융권 예적금 금리의 2~3배
위험도	지역적/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면 원금 반토막날 수 있음
특이사항	만기는 대체적으로 3년이나 조기 상환되는 경우가 많음

ELS란?

ELS는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풀이됩니다. 어떤 상품의 주식 가격에 연동
된 파생 상품이라는 뜻이지요. ELS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지수형 ELS	<u>코스피 지수, 다우존스 지수처럼 각 나라의 대표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u>
종목형 ELS	<u>삼성전자, 구글과 같이 특정 기업의 주식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u>
DLS 상품	<u>유가나 금 가격, 환율 등 다양한 파생 상품의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u>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ELS 상품들은 '얼마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스텝
다운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를 추적해서 "기준일의 가격"보다 50%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연 수익률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지수형 ELS 상품의 구조는 이런 식입니다.

미래에셋대우 공모ELS 제26021회(계단식 조기상환형) 청약마감 3 일전		미래에셋대우 공모ELS 제26021회(계단식 조기상환형) 청약마감 3 일전	
모집한도 15,000,000,000		조건종족 수익률 6.1%	
낙인조건 KOSPI200 : 50.00% HSCEI : 50.00% EuroStoxx50 : 50.00%		낙인조건	
기본정보		수익구조	
기초자산	KOSPI200,HSCEI,EuroStoxx50	1. 기초자산 : KOSPI200HSCEIEUROSTOXX50 2. 원금보장여부 : 원금비보장 3. 만기/조기상환 주기 : 3년 만기 / 6개월 평가 4. 세전 수익률 : 연 6.10% 5. 총모집금액예정 : 150억원 단, 초과시 안분배정, 5억원 미만 발행취소 가능 6. 청약단위 :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7. 청약마감 : 청약마감일 오후 1시 30분까지 단, 청약 취소는 청약 마감전까지 가능 <조기상환> ① 모든 기초자산의 1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총가가 각 최초 기준가격의 95% 이상일 경우 : 연 6.10% ② 모든 기초자산의 2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총가가 각 최초 기준가격의 90% 이상일 경우 : 연 6.10% ③ 모든 기초자산의 3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총가가 각 최초 기준가격의 85% 이상일 경우 : 연 6.10% ④ 모든 기초자산의 4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총가가 각 최초 기준가격의 85% 이상일 경우 : 연 6.10% ⑤ 모든 기초자산의 5번째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총가가 각 최초 기준가격의 80% 이상일 경우 : 연 6.10%	
청약일정	2018년 06월 11일 ~ 2018년 06월 15일 까지		
상품유형	고위험2, 계단식 조기상환형		
만기/상환주기	3년/6개월		
수익률	연 6.1%		
최대 가능 손실률	-100%		
기준가결정일 (해당거래소기준)	2018년 06월 15일		
발행일	2018년 06월 15일		

기초자산 : KOSPI200 (한국), HSCEI (홍콩), EuroStoxx50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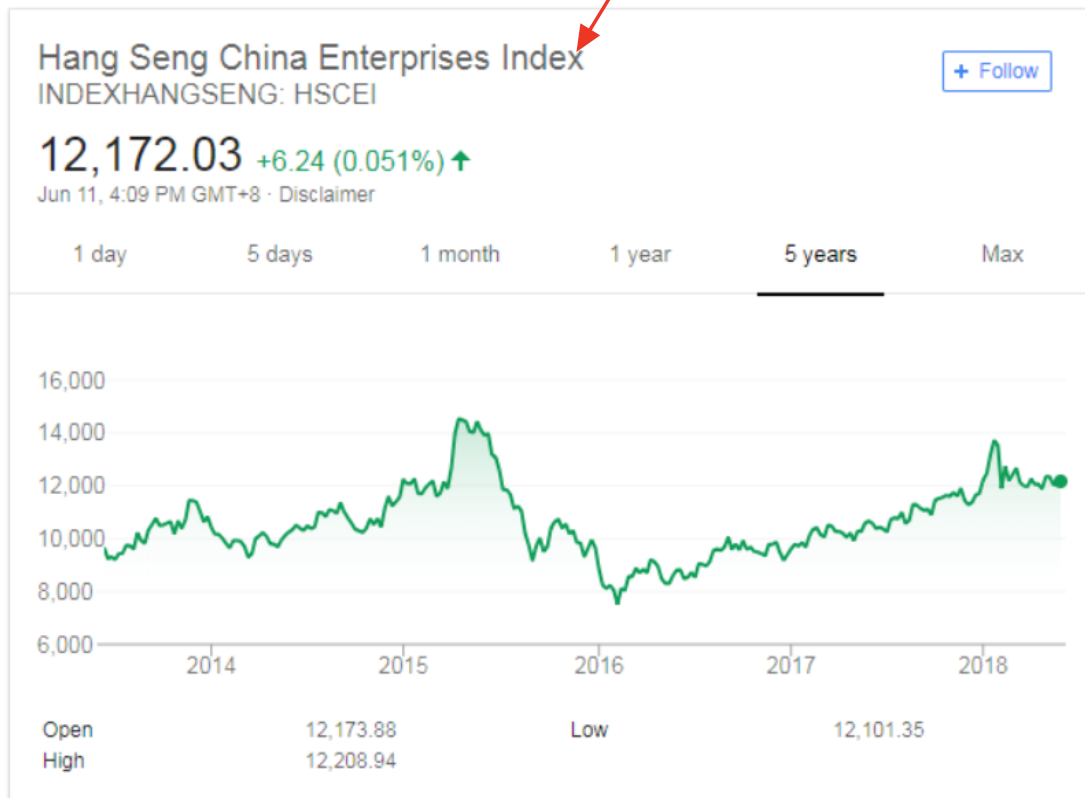
용어설명

1) 기초자산

기준이 되는 지수입니다. 지수형 ELS의 경우 (1개의 지수만 기초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와 같이 3가지의 지수를 편입시킵니다. 2개의 기초지수를 사용하는 상품도 가끔씩 등장하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3가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경우, 적어도 1개는 다른 지수보다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래야 상품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변동성이
커지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가끔씩 전세계 주식이 출렁거리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체감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처럼 전세계 주식을 급락시키는 이벤트가 벌어진 다음에 출시하는 ELS 상품은
조건이 같더라도 그 이전 주의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아진답니다.

이 상품에서는 HSCEI, 홍콩 지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대표 지수에 비해서 홍콩 지수는 변동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수형 ELS 상품은 이 지수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평소에 금융 관련 기사를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면 2015 ~ 2016년 지면을 장식했던 "HSCEI 지수의 급락!", "ELS 상품의 낙인 임박!"과 같은 기사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14,000을 돌파했던 지수가 7,000대로 급락하면서 HSCEI 지수가 포함된 ELS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 국가의 지수라고 하더라도 3년이라는 시간동안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2) 만기와 상환주기

즉, ELS'는 투자를 넣어두는 '기간'이 존재함.

대부분의 ELS 상품은 3년 만기로 출시됩니다. 가끔가다가 1년 만기나 5년 만기의 상품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3년 만기, 그리고 6개월마다 상환 조건을 체크하여,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면 조기 상환됩니다. 즉, 만기는 3년이라도 6개월후나, 1년 후에 조기 상환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ELS 상품 자체가 80-90%는 1년 내에 조기 상환되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3) 수익률

수익률은 당연히 상품의 조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은행 예적금 이자보다는 높아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으니 아무리 못해도 은행이자의 2배 정도가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인이 더 높거나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나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할수록 수익률은 높아집니다.

운 좋게 투자한 ELS 상품이 3년 만기까지 조기상환되지 않고, 만기상환된다면 연수익률 x 3배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연수익률이 5%였다면, 만기 수익률은 15%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6개월만에 조기상환되는 경우라면 연수익률의 절반인 2.5%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ELS의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사람들도 3년 만기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하게 되면, 해당 년도의 금융소득이 많아져서 금융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되어버리는(연간 2천만원 이상)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3년 만기 연수익률 8%인 ELS 상품에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3년 만기 이자를 받으면 총 24%로 이자만 1200만원이 나오니 말이죠. 세금이 걱정된다면 만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4) 조기상환조건

조기상환조건은 보통 6개월마다 체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5/90/85/85/80/75는 6개월 단위로 체크하게 되는 조건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6개월후 기초자산의 가격이 모두 95%의 이상이면 조기상환됩니다. 6개월동안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랐거나, 떨어졌더라도 5%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면 6개월 후에 조기 상환되고 해당 투자는 종결되는 것이죠.

다시 6개월이 지난 1년 후에는 90%로 조건이 변경됩니다.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랐거나, 10% 이내로 떨어졌다면 조기 상환된다는 것이죠.

95/90/85/85/80/75라는 상품보다는 85/85/85/85/85/85로 되어있는 상품이 좀 더 조기상환이 유리하다고 판단 내릴 수 있으시겠죠?

5) 낙인(knock-in)

앞서서 ELS의 상품의 구조를 설명할 때 '반토막만 만나면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반토막'이 바로 낙인입니다. 손실과 수익을 가르는 궁극적인 기준이죠.

기초자산 중 어떤 것이라도 3년동안 낙인을 터치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낙인이 50%라면 어느 한 기초자산이 49%까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투자한 돈은 3년간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낙인은 낮을수록 위험도는 낮아지지만 그에 비례해 수익률도 떨어지는 만큼, 투자자들의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015년-2016년의 HSCEI 홍콩 지수의 경우 14,000에서 7,500까지 급락하며 고점대비 53% 수준까지 급락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최고점에 ELS에 투자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낙인이 60%인 투자자는 낙인을 터치했지만, 낙인이 50%나 45%인 투자자의 상품은 낙인을 터치하지 않아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금융 시장인만큼, 현재 시장의 지수 수준이 높다고 생각될수록 낙인이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겠죠?

